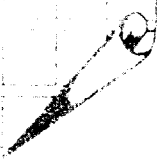


문예코너



● 체험수기

제 9 회 불조심 여성수필·수기
현상모집 우수작

“보라새로운 사람을”



엄연호

(동대문구 망우동 460-8·19통 6번)

멀리서 가파르고 아득한 길을 헤치면서 찾아 왔으니 앞으로는 땅끝과 하늘끝이 맞닿는 이역(異域) 일지라도 나는 조금하계 서두르지 않는 차분한 생활자세를 취하려 한다.

38살된 불구의 그이와 아들 철희의 삶에 대한 굳은 의지나 혹은 준엄한 자세를 보노라면 흐르는 눈물을 누가 볼세라 남몰래 감출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비록 불구일망정 그들의 육체가 얼음덩이 같이 차가우면 진정한 마음의 따사로운 불로 지퍼 줄것이고 마음이 어두울때 포근한 영혼의 불로 환하게 밝혀 준다는 생각으로 꽉차버린 오늘의 생활이 함박웃음으로 크게 웃을 수 있는 기쁨이 나에게 분명히 있다.

이제 내생활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일 뿐 사라져간 그들의 과거가 우리 생활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항상 불에 대한 경계심으로 화재의 재난을 언제든지 미리 막는 일일 것이다.

82년 3월 15일 새벽 부평의 그이집. 연거푸 아빠를 부르는 철희(당시11살)의 다급한 고함소리에 그이가 잠결에서 부시시 눈을 떴으나 방안은 이미 검은 연기로 휩싸였고 잠자리의 침구는 불길에 불기 시

작하여 독한 가스가 가득하게 일었다.

당황했던 그이는 철희를 부둥켜안고 도망나올 출입문의 방향을 잃은 채 가스에 질식되어 오른쪽으로 쓰러졌고 철희 역시 더 이상 소리조차 못지르고 방문에 기댄 채 넘어져 혼수상태였다.

그후 얼마나 지났을까? 방안의 매캐하고 지독스런 가스냄새는 온 집안에 꽉 들어찼고 안방에서 잠자던 친척 손님과 다른 식구들이 깨어나 “불이야!”하고 소리치며 허둥지둥 불이 난 건너방문을 열었을 때는 불길의 더욱 세어졌고 천신만고 끝에 잠자던 두 사람을 간신히 구해낼 수 있었으나 아예 까맣게 타버린 시체나 다름없었다.

불난 동네는 무척이나 시끄러웠다. 옆집 상돈네 자동차를 빌려 급히 병원으로 보내는 북새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 소방차의 요란한 싸이렌 소리가 들렸고 낯익은 사람들과 큰소리치며 발을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눈빛들만이 교차되었었다. 무슨 일이든지 꼼꼼하고 밟살스럽게도 철지했던 그이가 손님이 와 아들들 데리고 조금 차가운 건너방에서 잤더라도... 그날밤따라 어찌하여 평소

에 사용하지 않던 구입한지 4년이나 되는 전기장판을 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썼는지?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는 카시미론 삼단요를 처음으로 태우기 시작하여 잠자던 두 사람을 죽음의 길로 몰고갔다.

부평에서는 그래도 크고 좋다는 대동병원 응급실 당직 의사선생님들조차 당황할 정도로 두사람의 화상은 굉장히 심했으니 과연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다. 5시간에 걸친 응급치료후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을 향하는 앰블런스안에서 두사람의 땅이 꺼질듯한 외마디 숨소리가 간간히 들려올 때마다 혹시 죽는게 아닌가 싶어 더욱 초조하고 불안스러웠다. 화상환자는 원래 신체를 보호하는 피부가 손상되어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환자와는 격리수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실 사정으로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하루를 지내고 다시 국립의료원으로 와서 별관 301호실(2인용)에 입원할 수 있었지만 이틀이 지난 뒤에야 그이가 정신을 되찾았고 몇시간 후 철회도 깨어났다. 입원병실은 출입이 제한되었으며 남당의사의 허락없이 누구도 민회조차 할 수 없었으니 두사람의 상태는 가까스로 목숨만 붙어있는 정도로 짐작했었다. 그나마도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

입원한지 5일이 지나니 치료비 납부고지서 두장이 나왔다. 합계 1백 8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대동병원과 서울대학병원, 국립의료원의 각 응급실을 거쳐 오는데만 3백 70만원이나 들었으니 이제는 생명의 격정보다 돈 걱정이 앞을 어둡게, 그리고 침울하게 가리웠다. 집에 있는 돈은 부족했고 이집저집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값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리저리 마구 돈을 빌렸다. 화



재전의 생활은 남부러울데 없을만큼 괜찮은 편이었다. 그러나 막상 뜻밖의 재난을 당하고 보니 뭉뚱이 필요했지만 웬일인지 돈있는 집보다 없다는 집이 더 많았다.

돈을 빌리자니 민망하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으며 한편은 치사스럽기 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때는 생사를 다투던 때라 그런 생각이 먼저 나는건 아니었다. 이래서 재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걸 절실히 실감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눈송이같이 봄시도 흠날리던 꽃가루도 이제는 푸르른 6월의 녹음속으로 사라져 가고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기 시작했다. 그이와 철희의 상태는 이제 안심해도 좋을 만큼 호전되어 그동안 돈이 덜드는 일반병실로 옮겨졌고 철희의 식사는 죽에서 밤으로 바뀌었으며 그이도 미음만 먹다가 죽을 먹게되니 남이 먹여주는 것일망정 살것만 같아 보였다.

의사 선생님들의 오전 회진시간이 끝나고 치료가 시작된다. 손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둘둘 감겨진 수십겹의 붕대를 풀면 두툼하게 대어진 소독거즈 위로는 피와 농이 엉켜 배

어 나왔고 가정집 목욕탕 욕조 비슷한 탕안의 소독물속에서 2시간이상 어떤 때는 4시간이나 상처난 몸을 불린다. 탕안의 물은 핏물인지 피뭍치인지 분간조차 어려울 정도로 탁하고 게다가 야릇한 기운나쁜 냄새마저 풍긴다. 그이의 화상부위는 3도 전신 65%에 해당되지만 오른쪽 쪽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얼굴, 팔, 다리 모두 우측이 더 심했고 철희는 55%이지만 얼굴과 양손이 특히 심했다. 치료할 때는 썩어가는 살, 조직이 파괴된 부분을 킁뚱으로 잡고 가위로 도려내는데 그야말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아픔이 따른다. 철희의 치료는 매일 2시간정도 걸리는데 처음부터 끝날때까지 아프다고 우는 소리는 복도 맨 끝에서도 들리며 그이는 아주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강강거리는 소리 뿐이다.

눈뜨고는 볼수 없고 귀멀고 들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치료시간 20분전의 마취주사로 그 참혹한 아픔과 고통을 견디기엔 별효과가 없는 것일까? 치료가 끝난후 병실로 돌아오면 온몸은 불덩이같이 화끈거리고 축 늘어져 탈진상태다. 그런 치

료가 매일 계속되면서 입원 3개월이 지난 6월하순 철희의 손가락을 양손 모두 절단수술해야 하니 수술 승인각서에 보호자의 서명날인을 요청해 왔을때 또 한번 눈앞이 캄캄했으니 이제 겨우 11살된 것을 평생의 불구로……

며칠전부터 얘기는 들었지만 설마 했는데 막상 수술실로 보내야 하는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가슴을 쥐어짠듯 하였다. 어찌하여 화재의 재난이 우리에게 이토록 몹서리치게 무섭고 떨리게 하는지 통곡의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러나 그나마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였으니 뚝섬에서 음식점을 하는 42살된 아주머니는 주방의 가스폭발에 화상을 입어 왼쪽팔을 절단해야 했고, 천호동의 중학생은 원두막에서 촛불을 켜 놓은채 잠든사이 양초가 넘어지면서 불이나 반쪽얼굴에 두눈까지 잃었으며, 인천의 생선공장 냉동실 아저씨와 강원도 영월의 쌍둥이 형제는 아예 죽었으니 화재를 당한 재산피해보다는 인명피해가 더 무서웠고 그외에도 가지가지 화재의 화상환자는 퇴원 숫자보다 입원숫자가 더 많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뜻밖의 재난이었다.

같이 있었던 그들도 병원비 때문에 걱정했으며 그나마 낫다는 사람은 의료보험 가입자였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였다. 그후 철희는 다치지 않은 등과 다리부분의 허벅지 살을 떼어다가 얼굴, 팔, 무릎등 피부이식 수술을 네차례나 더 했고 그이도 오른쪽 손가락을 역시 절단했으며 얼굴, 어깨, 다리의 수술을 7차례나 했으니 82년 8월 퇴원후 3번이나 더 입원하는 쓰라린 고통을 견디어야 했다. 그리하여 그이와 철희는 온몸 전체가 흉터로 망신창이가 되었고 손가락이 없는 불구자로서의

형편없이 어려운 생활중에도 우리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재산피해 사망의료 보상은 물론 휴유장애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니 전과같이 무계획한 무방비의 생활자세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나 하고 지금은 든든해 한다.

숙명적인 길을 걷게 되었다.

그길을 같이 동행하게 된 나에게 화재발생과 병원에서의 생활중 일부만을 그이가 들려준 얘기였다. 그의 본부인은 불구의 남편과 자식을 뒤로한 채 멀리 떠나버렸고 10년이상을 옆에서만 지켜보았던 나는 이제 그이의 새 아내가 되고우리 철희의 새로운 엄마가 되어 성모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사랑스레 감싸안은듯 함께 웃고 생활할 수 있는 세월이 되어지도록 한껏 노력하며 다시는 재난의 참화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에게 닥친 화재는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아픔이 더 컸기에 이제부터는 그자각을 다지듯이 몇번이고 개안(開眼)의 감격을 맛볼 수 있어야겠다. 그는 불구자요(게다가 아들까지) 또한 경제적으로도 보충금 20만원에 월4만원의 여인숙 단칸 세방으로 몰락되었으며 불이 났던 집과 살림살이는 몽땅 팔아서 그동안의 병원비로 쓰고서도 7백만원의 빚으로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의 그이는 과거 불시에 몰아닥친 재난의 예방을 소홀히 생각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듯이 행여나 나에게는 하고 준비하는 마음 가짐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이는 누구를 탓할 수도 원망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이를 존경한다. 지금이라도 그는 뒤를 똑바로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82년 화재이후 그이는 화재사고의 원인이 되겠다 싶으면 부엌이건 방이건 그의 생활주변 어디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쳤던 아들을 웅변연사로 지도하여 불조심 웅변대회는 빠짐없이 참가하여 불의 무서움이 죽지 않으면 나처럼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몸으로 열변으로 토해 화재의 경각심을 피하는 무서운 집념을 못사람 앞에서 외치고 보여주게 한다. 지난해에도 인천 북부소방서장기 생탈 제4회 불조심 웅변대회와 한국화재보험협회 주최 제7회 전국학생 불조심 웅변대회에 참가하여 많은 사람앞에 불조심의 생활화를 불러 일으켰으며 각각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영광도 함께 가졌다. 그때 우리 식구들은 부등켜 안고 울어버리는 짙고 묘한 감정속에 사이기도 했으며 지금같이 형편없이 어려운 생활 중에도 우리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재산피해, 사망, 의료비보상은 물론 휴유장애에 대한 보상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니 전과같이 무계획한 무방비의 생활자세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나 하고 지금은 마음 든든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재난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그이를 난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모른다. 